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17~2015.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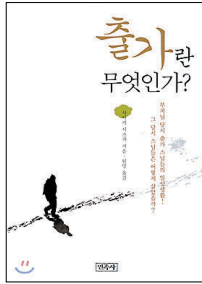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인	수오서재	6	설천(법정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 원택	책읽는섬
2	악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당	7	한권으로 읽는 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제종출판사)	
3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용연	불광출판사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렁스님 김한준	효림
4	법륜스님의 행복-행복하고 싶다면 마음공부를 하라	법륜	나무의마음	9	스님의 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5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10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로젠버그의 나무를심는사람들	



“승단은 사회의 바다위에 떠 있는 섬”

출가란 무엇인가?

사사키 시즈카 지음 | 원역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5천원



〈출가란 무엇인가?〉는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2007)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원제를 살려 재출간한 것이다. 이 책서 저자는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오는 빠알리 율장 자료로 붓다 당시

승단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불교 승단의 성립과 구성, 승단의 개념, 출가의 식, 승단 내 경계, 승단의 교육제도, 여성의 수계, 승단 내의 남녀평등 등의 주제로 승가의 기본 운영이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한 텍스트로 율장 연구의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이 책은 출가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밝혀낸다. 저자는 초기 승단의 모습을 비교의 척도로 삼아 현대 불교가 안는 갖가지 문제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친다. 이를 통해 승단이 없는 일본불교를 반성하는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하여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기의 한국불교, 율장서 그 해법을 찾다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승가 공동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불교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율장 정신을 본받아 여법 여율(如法如律)한 승가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율장 정신이란 무엇일까? 한국불교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무척내고 율장을 읽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율장 정신의 회복은 율장의 전통을 고수하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

불교 교단사와 계율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현재 승가가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불교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율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승가 공동체가 성립되고 유지 발전되는 과정서 만들어진 율장을 보면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 승가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는 ‘승이란 무엇인가’ ‘율장이란 왜 필요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신중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

에도 통용되면서 붓다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참다운 승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율장이 만들어진 시대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장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승단은 섬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다. 그러나 섬이 바다에 떠있는 것처럼, 승단은 일반 사회의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속세를 떠난 집단이라고 해서 속세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때문에 승단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갔다. 섬 사회와 일반 사회를 구별 지으면서 이어 주는 것이 바로 결식(乞食)이다. 현실에서 승단은 일반 신도의 기부나 공양 덕분에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승단은 일반 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 당시 승단모습 구체적으로 묘사

출가 통해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 조명

승단은 율장이라는 규율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율장에는 출가자 개인의 결의를 의미하는 계(戒)와, 승단의 생활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율(律)이 있다. 이 둘을 합쳐 ‘계율’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 특히 율은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제정됐다. 이것이 바로 율장의 기본 정신이다. 예컨대,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는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속세와 승단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율이었다. 문제는 율장은 그것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득이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그 당시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규정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차법(遮法)에 의하면 초기 승단서 장애인은 출가할 수 없다. “신체 장애자는 출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당시 인도 사회가 신체 장애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확립되기 이전 일이었다. 또 이는 일반 사회의 여론을 늘 의식해야 하는 승가 집단이 취한 조치일 뿐이었다.

저자는 차법에 대해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차법은 그 당시 인도사회 속에서 불

교 승단이 사회와의 알력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법규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인도 사회에서 만 유효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이미 그 기능을 잃는다. 불교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중대한 오점이 되기도 한다. 불교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원점은 규칙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제정된 기본 이념, 곧 사회의 존경에 보답할 만한 집단답게 행동하고, 그 보답으로 존속이 허용된다는 ‘결식 이념’이야말로 불교 승단의 원점이 된다. 당연한 일일겠지만, 사회와의 알력을 막아주는 효력을 잃어버린 차법에 더 이상 그 존재 이유는 없다. 현대에는 현대에 맞는 법규가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역시 시급하다. 또한 다른 예로 비구니 팔경법을 들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하는 법은 비구들만 있는 집단에 뒤늦게 들어온 비구니 집단을 가르치기 위해, 즉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의적 조치일 뿐이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한 번 제정된 규율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완고한 태도에 있었다. 저자는 오늘날처럼 남녀평등을 요청하는 사회에서 승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단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저자는 현대 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 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현대 불교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여러 현실 상황에 대응해 가며 순차적으로 편찬되어 온 율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정보의 집적(集積)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잡다한 정보는 모두 현실 사회의 반영이다. 이는 일반 사회라는 바다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섬 사회(승가 집단)의 숙명이었다. 이런 출가(자)의 사회성에 대한 지식은 율의 현실적인 기록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자는 율장 연구를 통해 초기 승가가 결식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승가의 운영시스템을 변화시켜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율장 정신이란 이미 만들어진 율장을 고수하자는 완고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수승한 수행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유연한 태도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용수보살 이전의 다양한 불교학설 망라

대지도론 1~5세트

용수 지음 | 석법성, 구마라집 공역 | 운주사 펴냄 | 27만원



〈대지도론〉은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해 여덟 종파(八宗) 조사라 불리는 용수보살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용수보살 이전의 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학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초기경전부터 대승경전까지 폭넓게 인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역사와 설화는 물론, 인도의 일반사상과 문화까지 총망라해 가히 ‘불교대백과사전’로 불린다. 이뿐만 아니라 〈대지도론〉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중 하나로 꼽힌다.

실존 인물이면서도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용수보살은 ‘제2의 석가모니’ 혹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칭할 만큼 대승불교 사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소승과 대승 경전과 학설, 수행 등을 섭렵한 후 뛰어난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중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을 주석한 논서로서 〈지론〉 〈대론〉 〈석론〉으로도 불린다.

용수보살 이후의 대승불교 종파들은 그의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용수보살이 시조이거나 그로부터 발원한 종파들이 여덟 종파에 이르러 그를 ‘팔종의 조사’라고 일컫는다. 중국과 한국서도 천태종과 화엄종은 물론이고 정토종과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종교이면서 철학으로 불린다. 그만큼 불교사상은 깊고 넓다. 단순히 신앙으로서만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혹은 가지 하나만을 부여잡고 불교라고 여긴다면, 불교는 단순하고 쉽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통찰하고자 한다면, 불교라는 거대한 사유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불교는 끝도 없는 망망대해를 연상시킨다. 〈대지도론〉은 이런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범어(산스크리트)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구마라집이 한역(漢譯)한 100권이 전한다.

구마라집은 전체 90품 중 초품만 완역하고, 나머지 89품은 초역하여 100권으로 엮었다고 한다. 초품의 한역이 100권 중 34권까지이니, 용수보살 원본 분량은 실로 방대했을 것이다. 전하기로는 1,000여권에 이르는 대작과 300권으로 이루어진 약본이 있었다.

그렇다면 〈대지도론〉은 어떤 책인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용수보살 이전의 모든 불교사상 흐름을 집

대성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불교, 부파불교, 초기대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과 학설들을 종합하고,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설화와 전설까지 아우르며,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폭넓게 담나 들고, 인물과 지리, 인도사상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의 기초 개념, 대승불교의 주요 개념, 불교철학의 기본 범주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불교개념사전’ 역할을 한다. 주로 초품인 34권까지에서 보살, 삼매, 방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 37품, 3삼매, 4선경, 8배사, 9상, 8현, 10상, 11지, 10력, 4무외, 4무애지, 18불공법, 대자대비, 6신통, 수희심, 회향, 선근공양, 18공, 4연 등의 의미를 상세히 설한다. 35권부터는 〈대품반야경〉 제2 보응품부터 제90 초품까지의 해석으로, 초품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상세한 설명과 실천에 대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관되게 반야(般若)와 공(空) 사상을 천명한다. 이를 통해 대승의 주류로 중관학과 공사상을 확고히 정립했으며, 이는 유식사상과 유가행과의 형

〈대지도론〉, 불교의 대백과 전서로 불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100권만 현재 전해져

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대지도론〉의 불신관(佛身觀)과 법신관(法身觀)은 밀교를 형성시키는 기반이 됐다.

넷째, 대승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강조다. 즉 대승사상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사상적 논리 전개에 그치지 않고, 대승의 보살행이나 육바라밀 등 실천수행을 강조한다. 자리적 측면이 강하고 너무 번쇄히 흘러 대중과 유리된 소승이나 부파불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 내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대화를 하듯 복잡하고 난해한 교리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다양한 설화나 전설, 역사와 인물, 경전 인용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용수보살은 처음에 소승의 경전과 교학을 공부한 후 대승의 경전과 사상을 접하고 대승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그는 〈대지도론〉서 소승의 교설을 폭넓게 인용하면서도 시종일관 소승에 대한 대승의 사상적, 실천적 우위를 드러낸다. 대승불교가 태동한 이래 2천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와 학설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은 대승이라는 사상의 우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대승의 교의를 확립시킨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이다.

김주일 기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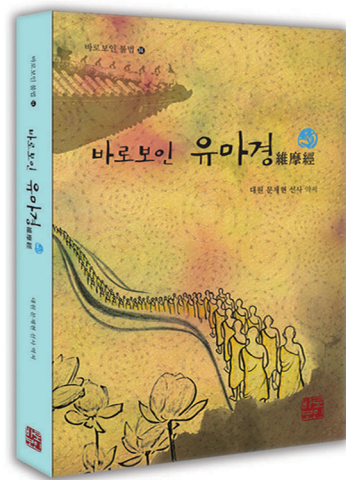
절로 문의전화

1644 - 9108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대원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 에 받든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별〉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증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도서출판 문젠 (MoonZen Press)

☎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참조